



#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지속

채원영 연구원

## ■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의 증가폭은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음.

- 2012년 7월 말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1조 7,000억 원 증가한 647조 5,525억 원임.
  - 전년동기대비로는 4.6% 증가하여 2011년 9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경기침체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대출수요와 일반신용대출수요 모두 감소하였기 때문임.
-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58조 5,95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.7% 증가하였음.
  - 전월대비 증가폭은 2012년 6월 말 1조 2,000억 원에서 7월 말 7,000억 원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대출 증가세 둔화와 휴가철 주택거래 부진 심화 때문임.
  - 주택대출은 전월 대비 3,000억 원, 기타대출<sup>1)</sup>은 4,000억 원 증가하였음.
-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88조 9,57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.6% 증가하였음.
  - 전월대비 증가폭은 2012년 6월 말 1조 9,000억 원에서 7월 말 1조 원으로 축소되었음.
  - 주택대출은 전월 대비 2,000억 원, 기타대출은 8,000억 원 증가하였음.

## ■ 그러나 가계대출 잔액 규모가 1,00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폭이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증가폭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-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과 기타금융기관, 판매 신용,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합계는 약 1,087조 원<sup>2)</sup>으로 이미 높은 수준임.
  -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1) 마이너스통장 대출, 예적금담보대출 등 주택대출 이외의 가계대출.

2) 예금은행 458조 5,954억 원,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88조 9,570억 원, 기타금융기관(보험, 연기금 등, 2012년 6월 말 기준) 222조 6,000억 원, 판매신용(신용카드 할부금 등, 2012년 6월 말 기준) 53조 5,000억 원, 개인사업자 대출 164조 원 (2012년 3월 말 기준).

- 또한,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의 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  -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예금은행 기타대출의 증가세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.

(2012년 7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, 한국은행, 9/11)